

# 구원의 확신과 전도자의 삶 -로마서-

히박국 2:4, 로마서 12:14-21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 하사, 가장 소중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 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깊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는 한계가 있으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 되는 메시지가 데마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참된 응답을 붙잡게 하옵소서. 3오늘에 승리하다가 현장에서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 세계복음화 사역, 랜넛 트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내 영혼과 체질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전도자의 삶을 나누려고 한다.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교회사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다. 마르틴 루터는 롬1:17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면서도 놀리고, 선교 사역까지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아 교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고, 역시 롬1:17의 말씀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렇게 은혜로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도들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 로마서를 바르게 설교한 설교집이나 강해도 드문 것 같다. 로마서를 가지고 40주 동안 설교하신 분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내용에 뼈대가 없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가 있었는데, 한 학기에 로마서 100번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다. 나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일흔 몇 번을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난해하더라. ‘아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냐. 행위를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그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다. 40주 강의하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들이 가진 문제와, 바울이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인다.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었다. 그래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옛 체질을 못 벗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제일 많은 것이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고도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율법을 받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힐난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며,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부연한다. 이것이 로마서 9장-11장의 내용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복음을 받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롬9:1-3, 롬 10:1, 롬11:1). 내가 볼 때는, 로마서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언약의 백성은 유신의 씨가 아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임을 믿는 사람이 진짜 언약의 백성이다. 왜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얼핏 보면, 외형적으로 로마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복음이나 율법이냐, 믿음이나 행함이냐 하는 이원론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얼마나 숨은 문제와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뒤로는 죄를 다 지으면서 남 앞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삼중생활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여셨다.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15장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죄 조금 지어도 괜찮아. 도박 좀 해도 돼. 야동 좀 봐도 돼. 바람 좀 피워도 돼. 경마장 좀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천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서 산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해야 하겠는가, 확신 없는 종교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 1. 인간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첫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바울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1)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죄

롬1:29을 보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미 간음이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싸운다. 누군가를 싫어한다.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린다. 몰래 그렇게 하는 것은 남 왕따시키는 전략이다. 성경은 지옥 가는 죄라고 했다. 하지 마라.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웃음) 이럴 때 혈액순환이 잘 된다. (웃음) 체질이 악한 체질이고, 남 비난하는 재미로 살고 그러지 않나. 교만하다. 메시지 들을 때 겸손해야 한다. 팔짱끼고 뒤로 한껏 기대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붙잡아야 할 것 아닌가. 별 것도 없으면서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롬1:31을 보라.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 (2) 율법으로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의 죄

롬2:1에, 남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했다.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하는 자체가 죄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우리는 자격없는 존재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할 것인가?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야기한다. 롬2:25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 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유익한 것이요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첫 번째 역할은 죄로 하여금 심히 죄 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살인이, 간음, 도둑질이 죄인 줄을 알 수 없다.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에는 이교도들은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다.

### (3) 모든 사람이 죄인

롬3:10에,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3:23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2.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나.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 (1)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칙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롬1:17에서 바울은 선언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2) 믿음의 내용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롬3:20-21을 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롬3:22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롬3:23-24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롬3:25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간과했

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한 번만 봐 주세요’ 하지 않나? 그때 봐주면 참 감사한데, 그것을 보고 ‘간과’라고 한다. 요즘은 간과를 잘 안 해 주는데. (웃음) 예수님은 어떤 죄와 허물도 간과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롬 3:26에,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오래 전부터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던 것이다.

### (3) 믿음의 효력

롬5:8-10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과거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예수를 믿고서도 그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3오늘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창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다. 무숙, 짐술, 우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체질이 그렇다. 마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간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래서 안전하다. 롬8:1-2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안식일,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길래 물어봤다. “유월절이 정말 그 날 맞아? 안식일은 몇 번까지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 이단들은 유월절, 안식일 다 지켜야 구원받았다고 험박을 하니 열심히 모이는데, 구원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음 받은 우리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길고 구원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한다. 그 정도 실력은 갖춰야 한다. 그렇게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우리가 겨우 주일성수하는 정도의 신앙이 되면 되겠는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 (4) 믿음의 방법

롬10:9-10을 보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롬10:13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면 알 되지 않나?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요, 우리의 구주시며,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주님이시다.

## 3.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오늘과 8미션을 우리는 왜 하는 것인가?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3오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옛 체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24시, 25시,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것을 누리시기 바란다.

### (1) 삶에 대한 기준 (산 제사)

롬12:1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도박장에, 눈과 귀를 율원에, 입을 마약에 드러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에 흠과 티가 없기를 바라신다. 양심에 의해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확정하지 않으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이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거둬야 한다. 화내는 말 한 마디, 비판하는 말 한 마디로 상대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상처, 불신앙, 스트레스를 주고받지 않나. 이제는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정말 입만 열면 복음만 이야기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는 체질이 되기를 바란다. 몸을, 입술을, 생각을, 귀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라.

### (2)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 기준

롬12:10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게으르지 않나. 그러면 그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갱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것 아닌가?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악습들, 게으름과 나태함이 변화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롬12:13-14,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기본만 조금 나빠도 미운데,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란다. 롬12:15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격자 소식을 들으면 같이 기뻐해야 한다. 불합격자는 같이 아파해야 한다. 서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롬12:16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도 겸손히 받을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높아질수록, 응답을 받을수록 겸손해지시기를 바란다. 롬12:17-18,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달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기록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다. 생명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최선의 전문성을 다하시기 바란다. 로마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롬16장은 이 확신과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받은 모델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32명의 이름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인가? 비비,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코, 유니아, 아블리아, 그리고 정운돈. (웃음)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보호자요, 동역자요, 사랑받는 자요, 많이 수고한 자요, 친척이요, 인정받은 자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요, 식주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은 바꾸지 않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모델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롬16장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것이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옛날에는 인간의 한계가 2시간 30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두 명이 그 시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는 대부분 선수들이 이 시간을 쉽게 돌파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흠 없이 티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안 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들이 롬16장에 기록된 32명이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이상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소원이었다. 여러분이 모두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한다.

이들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째, 로마의 핍박 속에서 복음과 성도를 위해 비밀결사대의 역할을 한 산업인이었다. 잡하면 죽으니까 비밀리에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나도 방글라데시, 중국을 다 다녀 보았는데, 여기에서 선교는 다 비밀로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30, 40명 모이면 나갈 때도 1분 간격으로 한 명씩 나가야 한다. 현장 가 보면 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비밀결사대가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든 마찬가지다. 조용히, 비밀결사대처럼 전도해야 한다. 둘째, 산업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직장과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은 홀리메이슨들이었다. 셋째, 램턴트 선교사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평신도였지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후대를 세계복음화할 인물들로 양육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닌가. 이 모든 말씀을 레마로,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롬16장 인물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확신을 갖지 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현장의 빛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뭇침 있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실천하다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롬16장 인물, 초대교회 일꾼들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옵시며, 더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된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